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0월 18일 (제1380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웃음꽃을 피워라

별이 잘 드는 마당 한편에 꽃씨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니 싹이 나고 줄기가 나더니 어느새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신기하게도 벌과 나비가 어디선가 날아온다. 아니 이 작은 꽃에서 얼마나 향기가 난다고 벌과 나비가 꽃향기를 맡고 날아온다니. 굳이 쫓아다니며 붙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각자의 바쁜 삶에 쫓겨 뿔뿔이 흩어진 가족,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인 가족, 어떻게 하면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면 된다. 웃음꽃이 피면 자연스레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떠났던 가족들의 마음이 가족 품으로 자연스레 돌아온다. 꽃이 없는 마당에 벌과 나비가 오지 않듯, 따뜻한 웃음이 사라진 가정에 가족들의 마음은 겉돌 뿐이다.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리 집 마당에 웃음꽃을 피워야 한다.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웃음꽃씨를 하나 심어야 한다. 퇴근길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에도 아낌없이 해주는 칭찬,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웃어주는 여유와 관심, 그리고 아주 작은 선물... 이런 것들이 웃음꽃씨가 되어 결국 가정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것이고, 별것 아닌 그것들이 향기를 뿜어 집 밖에서 헤매던 가족들을 가정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꽃씨를 심는다고 꽃이 바로 피는가. 물을 주고 가꾸어야 꽃이 피듯, 웃음꽃도 공들여야 핀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웃음꽃이 핀다. 꽃이 피기만 하면 그 향기가 퍼져 나가 벌과 나비를 부르듯, 웃음꽃이 피기만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족이 서로의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혹시 메마르고 삭막한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이 서로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사는가? 누군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작은 웃음꽃씨를 심어보자. 반드시 웃음꽃이 필 것이고, 꽃을 찾아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주변에, 가정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들 것이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웃음꽃이 피는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자.

자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9일 진행된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천이 흐르고, 거기에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면은 마치 갈릴리 바다 근처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펼치시던 그 성경의 한 장면 같았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팔도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영혼들을 전도하여 무심천 광장을 가득 채웠다. 무심천 주변 도로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그야말로 소도시 청주가 성령으로 발각 뒤흔들었다.

“저는 절을 지어놓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하고, 친한 고모님을 보살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방배동에서 하는 사업마

이날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자유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를 알면 자유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셨다.

“1950년 흥남 철수를 기억하십니까?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이 퇴각할 때, 북한 흥남항에서 수많은 피란민을 배에 태워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흥남 부두로 오라는 소식을 듣고 피란에 동참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며 무시한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공산 치하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났습니다. 월맹군이 사이공으로 진격하자 미국대사

니다. 천국은 슬픔과 아픔, 병이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글 지글 끓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막9:48). 전쟁 중에 소식을 듣고 흥남 부두로,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천국 비자입니다. 어린 시절, ‘비누’라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비누가 나오기 전에는 쇠죽에 손을 불려 쥘 정도로 때를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로 씻어보니 때



2026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10월 9일 무심천 체육공원)

다 잘되고 부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빌딩에 세 들어 있던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에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불렀고, 제 앞에 있던 구척이나 되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지가 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관과 인근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미국대사관으로 온 사람들은 살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은 월맹군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흥남 부두로 와라! 미 대사관으로 와라!’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살았지만,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죽거나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도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히9:27)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가 속속 빠져서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와 병으로 고통당했지만, 예수를 안 후에는 죄가 빠져나가고 병에서 고침 받는 것입니다. 새소식, 기쁜 소식이 왔는데 아직도 어둠과 죄악과 고통 속에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믿으시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가 청주예수중심교회만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온 힘을 다해 헌신 봉사해준 전국의 예수중심 일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송헌혜



병든 자여, 나오라!



청주전도집회를 배설한 청주예수중심교회 일오삼 목사 부부



회중 속으로 내려가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계20:10~15)



우리, 목표를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자

홍남 철수는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홍남항에서 철수하면서 약 10만 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사건입니다. 1950년 12월,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수많은 북한 주민이 공산정권의 박해를 피해 홍남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홍남 부두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퍼트렸던 것입니다.

홍남항에는 철수해야 할 군인과 군수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은 화물을 내리라고 지시하고는 공간을 확보하여 무려 14,000명의 피란민을 태워 남쪽으로 탈출시켰습니다. 배는 성탄절인 12월 25일에 거제도에 도착하여 이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화물선들도 빅토리호처럼 작전을 수행하여 무려 10만여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제가 이번 무심천 광장에서 청주전도집회를 연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홍남 부두로 가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누군가 외쳤듯이,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안 전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만 홀로 홍남 부두로 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공산 치하가 아니라 자유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우리, 사명에 부도내지 말자

그러나 홍남 부두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다로 가서 어찌겠다는 거냐? 헤엄쳐서 남쪽으로 갈 거야?" 하며 무시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러하니 어찌겠습니까? 공산 치하에서 고생해야죠.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를 믿어라." 해도 "헛소리하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해야죠. 그들 생각의 결과니까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듯 우리 속에 생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전합니까? 아니요.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이번 청주집회에 오셨던 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것은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뜨거운 태양에 말라죽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전도의 씨를 안 뿌립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데리고 와라.' 하신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공산 치하에서 힘들게 살 줄 뻔히 알면서도 나만 조용히 홍남 부두로 나가면 악한 자이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면서 나 홀로 신앙이면 더욱 악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복음 전파에 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목표를 둔 자를

파수꾼에 비유했는데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렘33:7). 세상에 나가 외치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와라. 넓은 길로 가면 망한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제 할 일이 뭔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파수꾼이 게으르면 어찌 될까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적이 들어오면 먼저는 파수꾼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는 모두를 죽이니까요. 파수꾼, 힘들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른 일도 못 하고 항상 촉각을 세워야 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청주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저 역시 지구촌의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세계를 다니면서 위험에도 처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멈추니까? 사명자는 목적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뛰는 것인지를 우리가 청주집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만족해서 주저앉아 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요 온 전 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2~14) 해야 합니다. 제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청주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미국 시애틀과 휴스턴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안 지치냐고요? 지치다니요. 신바람 나지요. 제가 지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천국의 소망을 늘 새기는 겁니다. 사실 믿는 자들도 천국에 대해 막연합니다. 장례식장이나 가야 '천국에 가셨겠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늘 소망하며,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을 생각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태릉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든 훈련에 지치지 않는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생각을 하기 때문이듯 말입니다.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너무 좋은 곳이니

다. 천국에는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 질병(계21:4), 저주가 없습니다(계22:3). 항상 열매를 내는 과실수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보석으로 지은 집 등,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부족한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도 힘이 안 나나요? 정신이 더 번쩍 나게 해드릴까요? 지옥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9:47~49). 눈을 빼는 고통보다,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손이 범죄하거들랑 네 눈을 빼고, 네 손을 찍어버리고 지옥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지요? 그걸 막 문지르고, 물을 부었다가 다시 소금을 치고 막 문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올려놓는데, 미꾸라지는 죽어버리니까 팬찮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 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간다면, 내 이웃이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나가 전해야겠지요? 당장 나가야겠지요? 끝으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힘을 얻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4:7~8).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한 것은 '목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딤후4:8). 그러니 우리, 목표를 향해 달려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봅시다. 홍남 부두를 떠나 자유 남한에 도착한 자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뤘듯,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52: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마지막 4할 타자에게 배운 주식투자 방법

지난 칼럼까지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2023년 99세로 고인이 된 찰리 멩거의 투자철학을 소개하려 합니다. 멩거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한 책이나 글은 많지 않은데, 마침 얼마 전 국내에서 멩거의 주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찰리 멩거의 바이블》이 출간되었습니다. 찰리 멩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핀다면 가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크게 베팅한다고 말합니다. 멩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번 돈의 대부분이 상위 10개의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 평생을 바쳐서 찾아낸 기회이고 버핏은 크게 베팅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애플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멩거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선택적으로 베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베팅하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케이블방송 HBO에서 2017년 방영된 다큐 ‘워런 버핏이 된다는 것’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버핏이 전설적인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쓴 책, 《타격의 과학》을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큐에서 버핏은 윌리엄스가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눈 후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가운데(sweet spot)로 들어오는 공을 기다렸다가 때렸기에 4할 타율이 가능했지, 낮은 쪽 코너로 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둘렀다면 타율은 2할3푼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윌리엄스의 말을 버핏은 인용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끈기 있게 기다렸고 결과는 전설입니다. ‘워런 버핏이 된다는 것’에서 버핏은 투자가 야구보다 훨씬 유리한데 이는 삼진 아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관중이 “방망이를 휘둘러, 이 멍청이야!”라고 야유해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거래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자신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 머물며, 능력 범위 밖의 일에 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가 주식투자에서 높은 타율을 올리는 것은 테드 윌리엄스처럼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만 노리기 때문입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만 노려라.” 버핏이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에게 배운 주식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겠지요?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이미경 권사

:: 세상을 보는 창 ::

믿음보다 감정이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며, 억울할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그 감정까지도 믿음 안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단순히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되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너희가 알게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1:19~20). 이 말씀은 ‘사울 왕’과 ‘갈렙’을 생각나게 한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자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결국 시기는 미움과 분노로 커졌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두려움에 끌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처럼 감정이 믿음을 압도한 경우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며 소

리칠 때 갈렙은 달랐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갈렙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4). 갈렙의 마음에는 감정보다 믿음이 있었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면 갈렙이 품은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갈렙처럼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며 성실하고 충성되게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갈렙이 두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사랑을 상처 입히기보다 살리고, 공동체를 흔들기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남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전도사님, 나 좀 보세요!”

유아유치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상황과 환경을 살피며 예의를 차리고 대화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전도사가 누구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든 개의치 않고 달려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며 도와달라 소리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필요와 마음이 언제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라도 아이가 곁에 와 때를 쓰면, 저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 원함을 먼저 들어주게 됩니다. 그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자세를 돌아켜보게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상황과 체면이라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하고 아이처럼 간절히 떼쓰며 소리쳐 부르짖는 영적 순전함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고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한 해가 되자!”입니다. 영적 은혜와 복 역시 타인을 돌아보기에 앞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은혜로 흠뻑 적셔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부터 은혜와 복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역사보다 자녀 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드는 어린아이의 담대함과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침내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오늘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이 표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은 지 어느덧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의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야 할 때, 힘을 잃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수1:5). 참으로 위대하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여호수아가 곧장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여전히 불어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묵묵히 견뎌야 하는 침묵과 훈련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의 능력이 된 순간은 바로 여호수아 3장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의 로드맵을 다 알지 못했지만, 눈앞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과 함께 거센 요단강 물에 먼저 믿음의 발바닥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수3:7). 하나님의 ‘오늘부터’는 약속을 가슴에 묻은 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흥해처럼 길이 먼저 열린 뒤에 건넌 것이 아니라, 넘실대는 물줄기를 향해 발을 들여놓았을 때 비로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지난 9개월간 쉽 없이 기도해 왔음에도 여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여 멈출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순종의 발을 물가에 적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오늘’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한 해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믿음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읍시다.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기적의 ‘오늘부터’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온 우리 삶과 공동체 위에 새롭게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현승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은혜의 선순환으로

작년 이맘때, 꽤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밤마다 폭식을 일삼았다. 먹고 자니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지니 움직이기 싫고, 체력이 떨어졌다. 체력이 떨어지니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먹었다. 돌이켜보면 살이 찐 데에는 나름의 ‘악순환’이 있었다.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들이 찾아왔다.

보다 못한 아내가 어느 날 퇴근길에 내 손을 잡고 체육관으로 끌고 가 PT를 결제해주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말이다.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그 체육관에는 회원들끼리 일정 기간 감량을 경쟁해 성적에 따라 레슨비를 환급해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현기증이 날 만큼 체력이 형편없었고, 터져 나오는 식욕을 억누르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하

지만 ‘아내가 쓴 비싼 돈을 기필코 되찾아 오겠다’는 의무감 하나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지키고, 또 운동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체중계의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비록 나보다 1kg을 더 감량한 회원에게 환급의 영광을 양보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배웠다. 바로 ‘순환’이 가진 무서운 힘이다.

악순환이든 선순환이든, 한 번 방향이 잡힌 흐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악순환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팽팽하게 당겨진 사슬에서 먼저 끊어지는 곳은 ‘가장 약한 고리’이다.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내 삶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선순환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악한 것들도 우리의 ‘악한 고리’를

공략해온다. 악한 고리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아닌, 나만 은밀히 알고 있는 치부,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지점이 영적 악한 고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악한 고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내 삶에서 끊어야 할 악순환의 악한 고리는 무엇인지, 새롭게 연결해야 할 믿음의 고리는 무엇인지 돌아본다. 죄의 습관을 끊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선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이 마침내 우리 인생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작은 눈덩이였던 은혜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그 은혜의 눈덩이에 우리 모두 기꺼이 휩쓸리길 간절히 소망한다.

전호정 집사



추계산상집회

- * 날짜: 11월 9일(월) ~ 12일(목)
- *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02. 533. 9191

Good News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 존 뉴턴은 한때 노예무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던 그가 훗날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며 노예무역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를 새롭게 한 것은 자신의 공

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잘못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해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께로 나아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책하며 주저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당신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개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만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보케이션(Vocation)’은 어원이 ‘부르심’을 뜻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부만 부름 받은 성직이고 농부나 상인은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속된 존재로 여겼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주일에 봉사하고 말씀 듣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현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일터는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룩한 선교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사는 것’을 넘어 ‘누가 주

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고린도에서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악한 것이지,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예배입니다. 생존이 걸린 치열한 시장 속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진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책상 앞입니까, 매장입니까, 혹은 거실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은 단지 돈을 벌어오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 파송 사도로 삼아 보내신 최전방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루, 일터로 나가갈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며, 나는 이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

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수십 년을 교회 지을 물질로 선교하시겠다는 사명으로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보내고, 세계로 나가 선교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지역마다 부흥회 포스터가 사라지고, 해봤자 돈 낭비고 사람도 안 모인다면 점점 교회와 교단들이 위축될 때, 다시 지역 목회자들을 깨우시며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산 집회, 이번 청주 집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걸 다른 지역, 남의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내 지역에도 집회를 열어 좀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리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몸 된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연식 목사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같은 이름의 색이라도 빛은 저마다 다르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누군가는 사랑을 팔로 건네고, 누군가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전한다. 같은 말도 금세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오래 생각한 뒤에야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표현이 다르다고 사랑의 깊이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남을 판단한다. 낯선 마음을 틀렸다고 단정해 버린다. 그러나 관계에는 내 마음을 전하는 일만큼 상대의 마음을 묻고 듣는 일이 필요하다. 나 역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했고, 반대로 오해를 받으며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사랑은 상대를 나와 같은 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다. 사람의 가치는 나와 얼마나 닮았는지로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이 된 뒤에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안다면, 타인의 부족함도 조금은 너그럽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쓴소리를 할 줄도,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존엄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되 회복의 길을 열어두는 것 또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지 색으로만 지으시지 않았듯, 우리도 서로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부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의 내일을 단정짓지 말자.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각자의 속도를 기다려 주자.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머물러 있다. 그 사람만의 빛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양은정 전도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